『신앙과 학문』, 제 13권 1호 (2008. 4), 9-44.

한국 기독경제학의 유형과 발전 방향*

김승욱(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은 기독경제학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니버(Richard Nieber)의 문화유형과 비교했다. 첫째 유형은 기존의 주류경제학을 완전히 부인하고, 별도의 기독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견해, 둘째 유형은 또 주류경제학과 기독경제학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극단의 견해, 셋째 유형은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의 핵심 분야라고 하는 견해, 넷째 유형은 경제윤리가 기독경제라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기존의 경제학을 기독교세계관에 비추어 보다 현실 설명력도 있으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경제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기독경제학자의 사명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위의 5가지 유형 중에서 다섯 번째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최근에 갈등을 보였던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서 기독경제학자들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현재 경제학계 뿐만 아니라 정치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도주의에 대한 연구 분야가 앞으로 기독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주제어: 기독경제학, 기독교학문, 기독경제학, 경제윤리, 경제정의, 기독교세계관

2008년 03월30일 접수; 2008년 04월18일 수정; 2008년 04월19일 게재 확정

* 이 논문은 2002년 3월 9일에 있었던 기독교학문연구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경제학 분야에서 기독교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논문을 기초로 했다. 당시 귀한 토론을 해 주신 토론자들과 세 익명 심사자의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모든 잘못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힌다.

Ⅰ. 서론

1. 한국에서의 기독학문 연구 동향

지난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에 기독교학문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 한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 어느덧 3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기독교학문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와 '기독학술교육동역회'(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이하: 동역회)는 『신앙과 학문』과 『통합연구』 등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20여년에 걸친 집담회, 학술대회 및 논문발표회 등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독려해왔다. 또한 1996년에 숭실대학교나 한동대학교, 백석대학교 등 기독교 대학에서도 『신앙과 학문 연구회』 등이 만들어져서 기독교학문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특히 21세기가 시작되는 세기 초에 "21세기와 한국 기독교학문의 과제"라는제목으로 열린 기독교학문연구소 기념 강좌에서 21세기에 한국에서 기독교학문이란 주제로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논의했다.[1)]

1) 당시 발표된 논문들은『신앙과 학문』, 제5권 1호 (2000년 봄, 통권 17호)와 제6권 1호 (2001년 여름, 통권 21호)에 발표되었다. 강영안(2000), 김정한(2000), 백종국(2000), 송인규(2000, 2001)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학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기독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 분야별로 기독교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2002년부터 기학연에서는 춘계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기독교학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연구를 시리즈로 발표하였다.

당시에 "기독교학문 활동은 한국 실정에서 가망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인규는 19세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와, 미국의 고등교육 상황, 그리고 최근의 미국 분석철학계의 상황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기독교학문이 꽃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를 한국인의 심성(mentality)과 이원론의 두 가지 배경과 함께 기독교학문 활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송인규, 2001: 170).

이렇게 기독교 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총론적인 검토는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적인 의식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각론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학문분야에 따라서 기독교학문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철학, 문학 등 일부 인문학과 예술분야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학문을 기초부터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과학, 의학, 공학 등의 분야는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전제에 대한 논의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 및 윤리성 정도는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위에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전반적인 기독교학문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과학은 이 두 가지 학문의 중간에 위치한다. 즉 사회과학분야에서 기독교학문을 재정립 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2. 기독경제학 연구 동향

이러한 지적에 따라 기학연에서는 2002년부터 각 학문 분야에서의 기독교적 학문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문의 주제인 경제학 분야는 당시에 김승욱(2002)이 기독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바람직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어떠한 것인지를 논의한 바 있다.[2]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기독경제학에 대한 학문적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기독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Hay, 1989; Schlossberg, Samuel, and Sider, 1994; Meeks, 1989; North, 1973; Tiemstra, 1993; Wolterstorff, 1987). 미국에서는 이미 1982년에 기독경제학회(AC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가 결성되어 『신앙과 경제학』(*Faith & Economics*)이라고 하는 전문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다.[3] 또한 성경적 기초 위에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엑튼연구소(Acton Institution)가 1990년 창립되어『종교와 자유』(Region and Liberty)와 『시장과 도덕』(*Journal of Markets and Morality*) 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4] 영국에도 역시 영국기독경제학회(UK ACE)가 있어 1985년부터 『기독경제학회지』(*Journal of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를 발행하고 있다.[5]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기독경제학자들만의 학회가 결성되지 못했으며, 아직 기독경제학 전문 학술지도 발행되지 않고 있다. 기학연의 기독경제학연구

---

2) 이 논문은 당시의 논의를 기초로 그 이후 있었던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3) 1999년 가을 이전에는 *The Bulletin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Gorden College)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http://www.gordon.edu/ace/aboutACE.html.

4) http://www.acton.org/

5) http://www.christian-economists.org.uk/

회와 동역회의 대구지역 경제학자들의 모임이 있지만 아직 개별 학회로 발전하지 못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추종하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이하: 성토모)도 기독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한국에서 기독경제학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경제학은 인간과 사회의 행동양태를 분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주류경제학의 경향이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지배하고 있어 자연과학과 유사한 방법론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주류경제학에서는 기본 전제에 대한 논의나 경제정의 및 경제 윤리에 대한 주제는 어느 정도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 위해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기독경제학을 새로운 철학 위에 재정립하는 것은 한두 연구자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모든 학문은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구축된 것이고,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세계관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경제학의 모색은 기독교 학자로써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기독경제학의 유형을 정리하여 분류하고, 바람직한 기독경제학의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은 기독경제학을 크리스천들이 가져야할 '경제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기독경제학이란 기독교인이 가져야할 경제적 행동지침이나 경제관, 즉 소비관, 재물관, 노동관 등의 어떠한 관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단체들을 통하여 정리되고 선언으로 발표되었다.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 미국 카톨릭 주교회(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1986)에서 간행한 "만인을 위한 경제정의"가 있고,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1987년에 스위스 빌라스에 모여서 구제와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발표한 "구제와 발전에 관한 빌라스 성명"이 있다. 그 이후 세계의 경제학자, 윤리학자 및 신학자들이 크리스천이 가져야할 경제관에 대한 논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째 모임을 가진 1990년에 크

리스천의 신앙과 경제학에 관한 선언을 "옥스포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상국(1991)은 제7회 기독학술발표회(1991년)에서 위의 세 선언을 요약하여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복음주의 기독교단체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경제관에 대해서 저술들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김세열(1988)은『기독경제학』에서 기독교의 경제관을 인간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 이후에는 김홍섭(1996)이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이라는 제목으로 고대와 중세에 기독교 경제관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종교개혁으로 경제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20세기에 있었던 기독교 경제관의 변화를 요약한바 있다. 이 외에 경제 문제를 다룬 많은 단행본과 논문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수 있으나 그러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서 그친다.

3. 본 연구의 과제

이 논문에서는 '크리스천이 가져야할 경제관'보다는 보다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기독경제학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한국에서 기독경제학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91년에 기학연과 동역회가 공동 주관한 제7회 기독학술발표회에서 있었다. 조상국(1989)은 '크리스천 경제학자로서의 학문연구'에서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의 바른 연구를 "첫째, 현대 경제학의 프런티어에서 우수성을 발휘하는 방법과 둘째, 새로운 대안(alternative)을 제시하거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경제학의 프런티어 부문을 소개하면서 기독경제학이 학문의 발전에 공헌하기보다는 비평 쪽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크리스천 경제학자가 연구할 만한 주제로 "마르크스경제학, 비대칭적

정보의 시장효과와 윤리적 측면, 학습, 변화하는 선호, 상호의존적인 선호, 이타주의, 신뢰, 기만, 계약, 가족, 조직, 공공선택" 등의 분야를 추천했다. 특히 "시장이 잘 작용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서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법과 사회적 제도가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크리스천 경제학자는 최선의 경제학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신학자, 사회학자, 윤리학자와의 학제간 연구를 강조했다.

그 이후 숭실대학교는 100주년을 1년 앞둔 1996년에 『신앙과 학문 연구회』를 조직하여 기독교 정신을 교육목표로 설립된 대학에서 탐구되고 있는 학문이 비기독교 대학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교육·봉사』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이 중에 경제학을 담당한 이윤재 · 황준성(1999)은 기독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이유를 주류 경제학이 실증적인 경제학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경에도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기독교 대학에서 경제학 교육의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했다.[6] 그러나 이윤재 · 황준성(1999)이 주장한 기독경제학은 매우 선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 이후 이우성(2001)은 제18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 "기독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소고"라는 주제로 그 이후의 논의를 정리했다.[7] 그 후 2007년 제24회 기독학문학회에서 황희영

6)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경제학이 필요한 이유를 인간의 바른 가치판단과 생활태도가 경제학 연구의 핵심인데 이에 관해서 성경은 유용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것, 2) 현실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3) 실증경제학 중심의 기존 경제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여 기독경제학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흥미를 유발한다. 4) 성서와 경제학을 연계한 기독경제학 과목을 통해 비기독학생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5) 기독경제학을 숭실대학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7) 이우성(2001)은 이 논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기독교학문연구동향도

(2007)은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김승욱(2008)은 『교회와 신학』에서 기독경제학의 유형을 경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기독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연구들은 기독경제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그 중에서도 대개 개혁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이다. 그런데 크리스천 경제학자들 중에는 사실 기독경제학에 대해서 이보다 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기독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성경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한국에서 기독경제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독경제학의 유형

1. 문화의 유형과 경제관

니버(Richard Niebuhr, 1951)의 문화 유형을 기초로 하여 기독경제학에 대한 견해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학문도 문화의 한 부분이므로, 니버의 문화유형과 유사하게 기독경제학을 구분할 수 있다. 기독교 문화관의 유형에 대한 고전적 저술을 한 니버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음의 5가지로 구분했다.

소개했다. 팀스트라(Tiemstra, 1993), 하트롭(Hartropp, 1997) 등의 연구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I)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II)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The Christ of Culture)
(III)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IV)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V)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니버의 문화관의 유형에 따라 경제관의 유형도 나눌 수 있다. 6세기까지의 초대교회는 사회경제적인 삶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러한 로마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세상과 등지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던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의 관점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공리주의적 경제관에 반대하여 금욕적인 경제관을 크리스천들이 가져야할 경제관이라고 여겼다. 가난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인식했던 공로주의적 금욕주의 등 수도원 운동도 기독교역사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경제관을 가졌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를 통해 청빈론의 대표적 주창자가 된 김영봉(2002; 2003)의 견해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문화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구원의 표시로 생각한다. 그래서 신앙을 물질적 풍요나 개인적 성취로 측정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물질적 풍요와 건강을 기독교의 복으로 둔갑시키는 '성공적인 기독교(successful Christianity)운동'이나, 짐 베이커와 지미 수웨거트 등 텔레반젤리스트(televangelists)은 기독교로 포장된 세속적 문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신국원, 2003).

이러한 양극단에 속하지 않고 신앙과 문화를 통합하려고 했던 최초의 노력이 중세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중세 교회는 신앙과 문화를 종합해서 초대 교회의 반문화적 성향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을 근거로 교회가 경제

영역도 지배하려 하였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 문화와 신앙의 통합은 성숙하지 못했다. 중세 교회는 헌금 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거룩해 지며, 재물도 교회의 권위 아래서 세례를 받으면 거룩해진다고 인식했다. 부의 창출 방식보다는 사용방식에 더 관심을 가져서 노동은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이고 육체노동보다는 신학적 사색이 더 고귀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무역 등 상업 활동을 천시하고 이윤추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했다. 성 제롬(St. Jerome)은 "상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도 "기업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상업을 여우가 썩은 고기를 탐하는 것에 비유했으며, '상업은 속이고 빼앗는 탐하는 행위' 이며, '앉아서 물건을 우수에서 좌수로 이동시켜서 얻어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중세 사회경제를 지배했던 중세 교회는 니버의 표현대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였으며 교회가 상업이나 이자의 정당성 등을 판단함으로써 신앙과 경제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과학 분야부터 교회가 진리로 선포한 것들이 허구로 밝혀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교회의 지배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 창조 직후부터 은퇴해 계신다는 이신론(理神論 Deism) 사조가 확산되었다. 중세의 섭리 신앙을 거부하고 자기 섭리와 자기 방임을 강조하는 이신론적 사조 속에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중세의 문화지배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였다.

이때 루터는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소명을 받고, 문화 영역도 직접 소명을 받으므로, 일반문화 영역에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루터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연결보다 각 영역에서 그 고유한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 과학, 또는 이류과학이 되며, 과학의 남용에 빠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문화의 상반된 권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문화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니버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화관을 가지게 되면 경제영역에서 (예수님이 도와주면 좋기는 하지만) 돈 버는 것이나 쓰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별 관계가 없다는 이원론으로 빠지기 쉽다. 그리고 십일조나 약간의 헌금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하우즈바르트(Gauzwaard, 1989)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영역에 이신론적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니버는 이런 어중간 한 입장을 "위대한 양서류"라고 부르면서 충분한 문화전략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원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매우 과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일 하루의 몇 시간 정도에 국한 시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계표를 교회의 네 벽에만 제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문화관에 비해서 칼빈은 적극적인 문화관을 제시하였다. 문화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작업을 소명으로 인식하여, 문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졌다. 니버는 이를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구속도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며, 경제도 구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물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써 청지기의 의무를 강조한다. 원래 돈도 하나님이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인간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가치와 자녀를 생존케 하시는 은총의 표시로서의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부요함은 내세의 풍요한 삶의 전조이다.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은총의 표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하면 시험에 빠져서 저주가 된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돈도 왜곡되어 돈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정복하고, 돈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구속

받은 인간 사이에 물질로 서로 돕고 상호 교환됨으로써 영적 연합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하여 칼빈은 물질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켰다. 그는 검소하고 자선을 베푼다는 전제 하에 부의 소유를 정당하다고 했다.[8]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Kyper, 1987)는 일반은총론을 문화와 관련시켜 이러한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확신에 종사하는 예배와 같으며, 삶이 곧 종교이자 교육, 정치, 경제 등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2. 기독경제학의 유형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학문으로써의 경제학에 대한 구분이라기보다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즉 경제관의 유형이다. 경제관과 경제학은 밀접하게 연관은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경제학(economics)은 경제현상(economy)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경제학 분야에서 기독학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에서 기독경제학의 연구동향이나 연구 방향을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우성(2001, 33)은 기독경제학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기독교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상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이고, 둘째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경제학이 갖는 모순점과 한계를 비판하는 연구," 그리고 셋째는 "현대 사회가 갖는 물질주의적이고 성장지상주의적인 가치관들과 그에 따른 사회의 폐해들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우성의 구분은 사실 첫째와 셋째는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형은 현대경제학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세분될 수 있다.

---

8) 칼빈은 저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독경제학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독경제학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 적극적으로 기독경제학을 추구하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의 것으로 기존의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어느 한 부분을 기독경제학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견해 등으로도 기독경제학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김승욱(2008)은 기독경제학을 부정하는 기독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포함해서, 니버의 문화유형을 이용하여 기독경제학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다.[9] 이 논문에서는 김승욱(2008)의 구분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기독경제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대경제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

니버의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에 해당되는 기독경제학의 유형은 지금까지 발전되어온 현대경제학을 모두 부정하고, 성경을 근거로 새로운 경제학을 모색하는 것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이다. 이들은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물질주의나 공리주의 등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심하게 물들어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학은 분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은 일부라도 기독교인으로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부류가 헨리 조지(Henry George, 1879; 1970; 2003)와 그를 추종하는 조지스트들이다. 헨리 조지(George, 1879: 313-14)는 레위기 25장의 희년 사상을 19세기 말 미국에 적용하여 미국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존속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토지단일세를 통해서

9) 김승욱(2008)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I) 기독경제학의 존재에 회의적인 견해, (II)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 (III)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 (IV)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세계관 검토를 중시하는 견해, (V) 새로운 경제학의 모색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토지의 사적소유제 하에서는 결국 토지가 소수의 지주들에게 편중되어 노동자들도 노예처럼 되므로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모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레이(대천덕, 1988; 2000; 2003)신부가 중심이 된 한국의 헨리조지 협회(헨리 조지 연구회, 2002; 성토모)가 이 운동의 사상적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헨리 조지의 사상이 21세기 현재의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유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모든 재화는 인간의 땀 흘려 얻은 소산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 소유해도 좋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사유해서는 안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윤상, 2002; 김윤상 · 박창수 2007; 이정전, 1988).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을 세울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경제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응하는 제3의 경제학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주류경제학은 동산과 부동산 등 모든 재화의 사유(私有)에 기초한 반면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모든 재화의 공유(公有)에 기초한다. 그런데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이론은 토지는 공유, 그 이외의 재화는 사유에 기초하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10)]

이들은 토지문제가 농경사회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가장 큰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며 토지정의를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매우 낙관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전강수 · 한동근, 2002).

이들은 현대 문화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들을 반문화적 유형으

---

10) 이러한 입장은 이들이 번역한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마르크스를 넘어 헨리 조지로(Anderson and Dawsey, 1992)"의 제목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알 수 있다.

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이 현대 경제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류경제학의 수요공급이론 등 시장경제를 바알의 이론이라고 일축하고, 크리스천 경제학자들 중에 주류경제학을 수용하는 자들을 이단시하며 정죄한다(남기업, 2007).

(2) 현대 경제학을 전면 수용하는 견해

이러한 견해와는 완전히 반대로 현대 경제학을 모두 수용하고 기독경제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 사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이 기독경제학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이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듯이 경제학자들 중에도 이러한 입장이 가장 많다. 니버의 구분에 의하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The Christ of Culture)"가 바로 이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특히 경제학의 영역에서 크리스천의 학문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인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현실적 가정 하에서라도 논리에 합당한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가정, 예를 들면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든지, 경제주체가 전지전능하고, 거래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들조차도 물리학적으로 치밀한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것이고, 후에 이러한 가정들을 하나씩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론이 정교하게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경제학자들은 가정의 비현실성을 문제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은 주류경제학의 가정에 대한 비판, 예를 들면 인간의 행복을 물질로 환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공리주의적 전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들은 주류경제학의 전제나 세계관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자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철학이나 다른 영역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

고, 경제학의 전제에 몰두하는 학자들은 이미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들은 경제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탁월성을 얻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현상을 연구하는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학자들이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들도 환경문제, 소득분배 문제, 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기독교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기독경제학과 비기독경제학을 구분하는데 회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은 기독경제학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독학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주장의 논문은 없고, 김성현(1998)의 글에서 이러한 주장을 읽을 수 있다. 그는 기독대학원생들의 모임인 GSF(Graduate Student Fellowship)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11] "기독교적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과감하게 주장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줄 만한 기독교신앙과 경제학의 통합이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런 통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

지금까지 설명한 양 극단은 현대 주류경제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전면 긍정하는 견해들이다. 이러한 견해들과 달리 현대경제학의 일부분을 수용하면서

---

11) 그는 기독교 학문하는 자의 고민을 "세상적 내용을 세상적 방법으로 추구하여 (운이 좀 좋으면) 성공한 학자가 될 것인가, 세상적 내용을 기독교적 방법으로 추구하여 (운이 좋더라도) 약간 떨어지는 학자가 될 것인가, 기독교적 내용을 세상적으로 추구하여 (교인들 중에서라도) 인정받는 강연/저술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적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추구하여 (교인들 사이에서조차도) 망해버릴 것인가"라고 획일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기독교학문의 추구 자체를 부정했다.

기독교학문을 추구하는 절충적 입장에서 기독경제학을 모색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경의 주요 사회원리를 강조하여 이 원리를 기독경제학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이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모세율법에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정신이 등장하며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돕고 경제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사회의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등을 보호하고, 잘못된 분배문제를 시정하여 공평한 분배를 통해 경제정의와 사회구원을 이룩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관심을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제학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분야 즉 노사관계론 등 노동경제학 분야, 복지 분야, 빈곤 문제, 농업경제학, 제3세계 착취 문제 등을 기독경제학에서 다루어야할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본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유주의신학을 수용하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남미의 해방신학과 종속이론을 수용하는 학자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수용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복음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에서 사회윤리를 전공하는 신학자들이나 평등을 지향하는 학자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니버의 유형에 대비해서 보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사회경제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현대 문화 즉 현대경제학을 평가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학의 방법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유물론 등 기본전제에 대한 비판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이론들이 추구하는 분배정의가 기독교의 주요 원리에 부합되므로 이러한 기존의 경제학의 일부분을 여과 없이 수

용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12)]

현대경제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첫 번째 유형의 기독경제학자들도 사회경제 정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류의 학자들과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학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

(4)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

주류경제학의 틀 안에서 기독경제학과 현대 경제학을 통합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가 경제윤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신학적으로 사회구원에 관심을 갖는 자유주의 신학계열의 학자들과 달리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행위를 강조한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함께 재물을 맡기셨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물관, 소비관, 직업관 등의 영역에 관련된 경제윤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적정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어서 착취하지 말고,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부패가 경제에 어떠한 악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자발적 나눔을 중시여기고 근검, 성실한 청교도적인 삶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경제적 삶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기독학자들은 사회 구조적 부조리, 특히 자본주의 시장

---

12) 김승욱(2008)에서는 이들을 니버의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평가했으나,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이 현대 경제학의 상당부분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기독경제학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 구조라든지 일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는 학자들은 신학교에 많다. 기독교윤리를 전공하는 학자 중에 경제윤리에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다수 있다.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와 '한국기독교윤리학회(2004)'에 속한 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다 같은 학문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학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을 니버의 문화유형에 비교하자면,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경제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학 연구에 몰두하기 보다는 그러한 주류경제학은 일반 경제학자들의 연구영역으로 존중하거나 놔두고, 기독교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이러한 경제윤리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의 경제학과 기독경제학을 서로 갈등을 보이지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별도의 학문 분야처럼 인식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들도 근검이나 절약 등 청교도들이 강조하던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하여 다른 세속적 가치보다 상위에 둔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경제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학자들에 비해서 현실 시장경제도 수용하고,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측면에서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13)]

---

13) 김승욱(2008)에서는 이들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로 분류했으나 이

이 유형에 속하는 기독학자라고 해서 사회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 중에 존 롤즈의 『정의론』 등을 전공한 학자들도 있다(이상원, 2000; 신원하, 2000). 다만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유형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론보다는 선지자적 비관론에 가깝고 개인의 변화가 사회 변화의 원천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를 강조한다.

(5) 기존의 경제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견해

마지막으로 니버의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Christ Transformer of Culture)"의 입장에 서서 기독경제학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한다. 이들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비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사회관에 부합되는 가정 하에서 경제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주류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 분류되지만 연구방법론은 자연과학처럼 자연주의(naturalism)에 기초한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경제 문제도 자연법칙을 연구하듯이 객관적으로 연구되고 기계적인 전체 시스템 하에서의 인과관계만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의 인간의 특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 등 인간의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우즈바르트(Gauzwaard, 1989)는 이것이 이신론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류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은 기독교학자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류 경제학에서 인간을 매우 합리적인 존재로 상정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연구에서는 분류를 바꾸었다.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기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 순간의 경제적 선택 상황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늘 일관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이 심하게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매우 제한된 존재로 현실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이미 19세기 말에 제도학파라고 불리는 베블렌 등에 의해서 비판된 것이지만, 오늘날까지 주류경제학에서 수용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하기 위한 편의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학을 실증주의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계속 수용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 경제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허구의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학의 잘못된 연구방법론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경제학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목적인 행복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로부터 얻어진다는 물질주의와 공리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한다. 성경은 인간에게 자족하고 족한 줄 알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도 없으며 그럴 권리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 학자들은 방법론이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떠나서 개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인간관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관을 보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서로 돕는 곳이라는 인식이 설 자리가 없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이 사회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개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가정할 뿐이다.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경제학을 변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독경제학이라는 인식은 바로 니버의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주류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이루는 기본 가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에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Hay, 1990).

물론 이들도 개인의 경제윤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설명한 두 유형들과 비슷하다. 그런데 차이점은 경제윤리나 경제정의를 넘어서 일반적인 경제학의 전 영역을 세계관의 입장에서 더 기독교적인 경제학을 모색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도 새로운 경제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조지스트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큰 차이는 현행 주류경제학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지스트들을 주류경제학의 모든 측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등 대부분의 경제이론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에 개혁주의 전통의 기독경제학자들은 주류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 등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힘이 시장가격을 결정하며, 이것이 자원의 배분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독경제학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학문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주류경제학의 잘못된 이론들이 배척되고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을 잘 설명하는 새로운 가정들에 의해서 기존의 잘못된 이론들이 대체되고, 그러함으로써 경제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설명하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왜곡된 생산과 분배 질서를 바로잡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III. 한국 기독경제학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기독경제학의 유형을 니버의 문화유형에 대비하여서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떠한 입장이 가장 바람직한 기독경제학의 연구 방향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신학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기독경제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니버가 5가지 문화 유형 중에서 변혁적 입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이 논문에서도 기독경제학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마지막에 언급한 "기존의 경제학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기독교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온 기학연과 DEW, 그리고 기독경영연구원 등 기독학술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이러한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들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설명하고자 한다.

1. 현대경제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의 문제점

먼저 현대경제학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경제학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사실 자연과학에서 뉴톤,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경제학에서 마르크스, 경제사학에서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14] 등과 같이 한 학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적 변화가 발생한 예가 많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독보적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독경제학이 나타날 수

14) 미국의 경제사학자이며, 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다. 더글라스 노스는 신제도주의 경제사학을 개척했다.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유형인 “현대경제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학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문화는 기존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문을 모두 배재한다는 것은 일견 바람직해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구어 놓은 문화 활동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0여 년 동안 이룩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학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독경제학자의 과제이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송두리째 모두 부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견해를 수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견해를 대표하는 조지스트들의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옳지 않기 때문이다. 조지스트들의 견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곽태원, 2005; 김승욱, 2007; 김정호, 1997; 2006; 이재율, 1998; 2005; 2006). 간단히 요약하면 레위기 25장의 희년사상이 토지공유제를 의미한다고 오해를 했으며, 토지불평등 분배가 모든 현대 한국 경제문제의 뿌리라고 과장해서 해석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의 수요공급이론은 바알의 이론이라고 매도했다.

2. 현대 경제학을 전면 수용하는 견해의 문제점

아마 크리스천 경제학자들 중에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경제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설명한 김성현(1998)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김성현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경제학의 정의를 협소하게 했기 때문이다. 김성현(1998)은 경제학을 “(즉, 주류라고 인정받

는 경제학자들이 인정해주는) 경제학자들이 쓰는 글에 담긴 것이 경제학이다."라고 주장하며, 경제윤리는 윤리학이지 경제학이 아니며, 전제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검증하는 것, 즉 경제학의 철학 (philosophy of economics), 경제학 방법론 (methodology of economics) 혹은 경제학의 기초 (foundations of economics) 등은 경제학은 아니며, "윤리"의 문제나 "전제의 검토"는 학문행위, 혹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다 제외하면 기독교적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독경제학이라든지 신앙과 경제학의 통합 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글에 담긴 것만 경제학이라고 하면 학문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듯이 처음 등장할 때는 주류학계와는 다른 것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다수의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되면 주류로 발전하는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도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주류경제학으로 평가받지 않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많이 미쳤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도 역시 주류경제학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경제윤리는 경제학이 아니라고 하면 경제윤리로 노벨상을 수상한 아마티아 센이 노벨 윤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경제철학은 경제학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의 모든 박사학위는 철학박사(Ph. D)라고 부르듯이 모든 학자는 기본적으로는 철학적 가치관 위에 서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성현의 경제학에 대한 정의는 너무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주류경제학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독경제학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물질주의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다. 물론 지나친

물질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물질을 복으로 주시지 않는가 반문하며 경제학자들이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 일반적으로 성장지상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하는 등의 말을 하고, 이러한 것이 기독경제학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관심은 비 기독교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목표가 성장일변도를 추구할 경우 슈마허(Schmacher, 197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비 기독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의 문제점

주류경제학과 구별되는 기독경제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기독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경제윤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문제 중에서 기독경제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가? 그 답은 신학과 세계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학자들은 영혼구원과 개인의 변화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신학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복음주의 및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기독경제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했으므로 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으로 인해서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을 기독경제학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예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없다는 비관론적인 사회관을 가진 신학적 배경의 학자들은 사회 구원의 문제보다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사회구조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기독경제학의 방향이 빈부격차 해소 등 분배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교단에 있으면서 정의론 등 경제정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입장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론은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 크리스천으로써 기독경제학을 한다면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문제 제기와 초점이 벗어난다. 정의론이 기독경제학에서 다루어야하는 영역 중의 하나로 포함 될 수는 있지만 경제정의에 대한 연구가 기독경제학이라고 완전히 등치시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본다.

4.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이 기독경제학이라는 견해의 문제점

복음주의이든 개혁주의이든 대개의 신학자나 윤리학자들은 경제학보다는 윤리학에 더 익숙하고, 윤리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들 중의 대부분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개인이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의 변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변혁적 입장에 서있다. 따라서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혁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를 경제윤리 등 사회윤리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 편식 경향은 경제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경제학의 훈련을 받은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의 경우 정의론이나 윤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경제학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요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신학적 훈련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문적 편협성으로 인해서 신학교에서 연구되는 기독경제학은 사실 기독교윤리학에 가까운 것이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윤리분야도 기독경제학의 중요한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경제윤리가 곧 기독경제학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기존의 경제학을 변화 발전시켜서 보다 기독교 세계관에 합당한 기독경제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학과 경제학의 학제 간 연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함께 학회활동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학문학회 등의 학회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류경제학의 가정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보다 현실적이고 기독교세계관에 부합된 가정에 기초한 더 발전된 경제학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기독경제학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주류 경제학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많은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물리학적인 엄밀성을 추구하면서 수학과 통계학적 분석에 치중한 반면에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사회분석에 생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인간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회의 문화와 제도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이 분석에 포함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IV. 결론

이 논문은 기독경제학자나 기독윤리학자들이 기독경제학 분야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경제학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이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독경제학에 대한 견해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니버의 문화유형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는 주류경제학과 구별되는 기독경제학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독경제학이 그렇게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경제정의나 경제윤리와 같이 경제학의 어느 부분에 한정되는 용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경제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경제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의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경제학계에서 그리고 정치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도주의에 대한 학문분야가 앞으로 기독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기독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통일된 견해를 갖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간 심한 사상적 갈등을 겪었다. 선진국들이 동서냉전 시대에 오랫동안 겪었던 사상적 갈등을 한국은 최근에 와서야 겪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독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깊이 있는 논쟁이 매우 부족했었다. 미국의 기독경제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 견해인가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했고(Hay, 1990), 교회와 사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동안 반공을 국시로 걸었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논쟁은 금기시 되었다가,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폭발적으로 수용되면서 기독교학계에서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한국사회와 교회는 사상적 갈등이 많다.

과거에는 경제학의 영역에서 사상적 갈등은 자본주의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동구권이 몰락하고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이제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수용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 또는 신자유주의 조류에 대한 견해차가 핵심문제로 등장했다(김승욱 외 3인, 2004).

일부 기독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시장기능에 맡기지 못할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문제는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시장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며,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여기는 가치관 위에 형성된 가진 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체제로 규정하고, 가능한 한 시장경제에 자원배분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 교육, 농민문제, 노동자 임금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시장기능 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선호한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대외적으로 세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세계화는 부유한 나라, 특히 미국의 논리이며, 부국이 빈국을 착취한다고 하는 세계체제론, 또는 해방신학의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사회주의 몰락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대부분 비판의 초점을 신자유주의 반대로 돌렸는데, 기독교계에도 다른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다.

하우즈바르트(Goudzwaard, 2001)는 세계화를 악마의 활동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세계화 추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의무가 기독교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계의 입장은 신자유주의적 조류, 즉 정부 역할의 축소와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은 기독교인이든 비 기독교인이든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인 경제학자와 경

제윤리학자, 신학자, 및 다른 사회과학자 (정치학 및 사회학자)들 사이에 신자유주의의 추세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기독경제학자들이 많은 학술적 교류를 통해 성경과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계의 통합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더욱 기독경제학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안 (2000. 봄), "한국 기독교 철학의 요청과 과제," 『신앙과 학문』, 5(1), 7-29.

곽태원 (2005),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김동원 (2002), 『깨끗한 부자: 청부』, 서울: 규장.

김성현 (1998. 1-2),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라고요?," 『기독교학문연구소 소식지』, 50, 6-14.

김세열 (1988), 『기독교 경제학』, 도서출판 무실.

김승욱 (2002. 3. 9), "경제학 분야에서 기독교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학문연구소 200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_____ (2007),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신앙과 학문』, 12(3), 83-124.

_____ (2008, 봄), "경제 신학의 가능성 및 유형," 『교회와 신학』, 72, 17-26.

김승욱 · 조용래 · 김재익 · 유원근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서울: 부키.

김영봉 (2002), 『사귐의 기도』, 서울: IVP.

_____ (2003),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서울: IVP.

김윤상 (2002), 『토지정책론 : 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 한국학술정보.

김윤상 · 박창수 (2007),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서울: 살림.

김정한 (2000. 봄), "21세기 과학과 기술," 『신앙과 학문』, 5(1), 31-52.

김정호 (1997), 『토지세의 경제학: 미신과 현실』, 한국경제연구원.

_____ (2006), 『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자유기업원.

김홍섭 (1996),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통합연구』, 9(1-2), 7-36.
남기업 (2007, 5), "토지는 다른 재화와 명백히 구별된다," 『목회와 신학』,172-177.
대천덕 (2000),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신학과 사회)』, 서울: CUP.
_____ (2003), 전강수·홍종락 역 『토지와 경제정의』, 서울: 홍성사.
_____ 편 (1988), 『토지와 자유: 성서적 경제관』, 도서출판 무실.
백종국 (2000. 봄),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음과 복음적 분업," 『신앙과 학문 』, 5(1), 53-83.
사이더, 로널드,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보이스사.
송인규 (2000. 봄), "기독교학문활동은 한국 실정에서 가망이 있는가?(I)," 『신앙과 학문 』, 5(1), 85-106.
_____ (2001. 여름), "기독교학문활동은 한국 실정에서 가망이 있는가?(II)," 『신앙과 학문 』, 6(1), 149-193.
숭실대학교 출판부 편(1999),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교육봉사』, 동 출판부,
신국원 (2003),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문화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 전략』, 서울: IVP.
신앙과학문 연구회 (1999),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교육봉사』, 숭실대학교 출판부.
신원하 편 (2000), 『기독교 윤리와 사회 정의』, 한들출판사.
이상원 (2000), "존 롤즈의 정의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신원하 편(2000), 『기독교 윤리와 사회 정의』, 한들출판사.
이우성 (2001),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소고," 제18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이윤재·황준성, (1999), "신앙의 눈으로 본 경제학과 교육,"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교육봉사』, 숭실대학교 출판부, 169-181.
이재율 (1998), "헨리 조지의 분배이론 연구," 『경제학연구』, 46(2), 301-327.
_____ (2005),"헨리 조지의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제연구』, 14.
_____ (2006),"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와 성경적 토지제도," 『신앙과 학문』,기독교학문연구회, 11(2), 169-93.
이정전 (1988), 『토지경제론』, 서울: 박영사.
전강수·한동근 (2002),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헨리조지 연구회, 『헨리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학교출판부.
조상국 (1989), "크리스천 경제학자로서의 학문연구," 『통합연구』, 2(3), 14-26.

_____ (1991),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제7회 기독학술발표회 발표논문.

한국복음주의윤리학화한국기독교윤리학회 편 (2004), 『경제문제와 기독교윤리: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헨리 조지 연구회 (2002),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학교 출판부.

황희영 (2007),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 『기독지성, 한국사회를 말한다: 한국 근현대 사회와 교회의 역할』, 제24회 기독학문학회 발표논문(2007. 11).

Anderson, Robert V. and James M. Dawsey (1992), *From Wasteland to Promised Land: Liberation Theology for a Post-Marxist World*,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1996),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마르크스를 넘어 헨리 조지로』, CUP.

Gauzwaard, Bob (1989), *Capitalism and Progress*, 정세열 · 김병연,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_____ (2001), 『Globa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The Kuyper Lecture Series) Baker Books.

George, Henry (2003), 김윤상 · 전강수 (역), 『헨리 조지의 세계관』, 진리와 자유.

_____ (1879) *Progress and Poverty*.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_____ (1970), A. W. 맷슨 줄임, 『진보와 빈곤 (축약본)』, 김윤상 역(1989), 진리와 자유.

Hartropp, Andy (1997), "Christianity and Economics: An Annotated Bibliograph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Hay, Donald (1989), *Economics Today : A Christian Critique*, Leicester, UX: Inter Varsity.

_____ (1990),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Socialism, 김정식 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IVP.

Kyper, Abraham (1987), *Christianity as a Life-system: the Witness of a World-view*, 서문 강 역,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기독교의 세계관과 인간 이해』, 새순출판사.

Meeks, M. Douglas. (1989), *God the Economist*. Minneapolis: Fortress.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1986). *Economic Justice for All : Pastoral Letter on Catholic Social Thought and the U.S.* Catholic Conference.

Niebuhr, Helmut Richard (1951),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2007),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North, Gay, (1973),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conomics*, Nutley, N. J.: Craig Press.

Schlossberg, Herbert, Vinary Samuel and Ronald J. Sider (1994),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Grand Rapids.

Schmacher, E. F. (1975), *Small is Beautiful :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이상호 역(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Stott, John (1985),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기독교문서선교회.

_____ (1999), "우리의 사회적 책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

Tiemstra, John P. (1993),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Christian Scholar's Review*.

Wolterstorff, Nicholas (1987), "The Bible and Economics : The Hermeneutical Issues," *Transformation*. 4(Summer/Fall).

Abstract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Christian Economics

Seung Wook Kim(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the various views on Christian Economics, and to evaluate which is the most desirable one. Similar to the five types of Christian culture of Richard Nieber(1951), the views are divided into five. First type is the extreme one which evaluate the traditional economics cannot be admitted by Christian economists and new economics based on Bible should be developed. The second one is another extreme one, which argues that there are no needs for Christian economics which differ from mainstream economics. The third one is the view that Christian economics is similar to the economic justice, and the fourth one is those that the main focus of Christian economics should be on economic ethics. The last one is that Christian economist should develop and have influence the mainstream economics for it to be built upon the Christian world-view.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fifth view on Christian economics is the most desirable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other views.

And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Christian economist should widen the belt of consensus on the

evalua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and new-liberalism. Also, it is insisted that the most promising area in economics for Christian economists i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n which not only economist but also scholars majored on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interests.

Key word: Christian Economics, Biblical View on Economics, Christian Studies, Economic Ethics, Economic Justice, Christian World-view